

이번 주 순모임 교재:
지난 주 로마서 설교 말씀

로마서 강해 6 | 진정한 유대인

로마서 2:17-29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 의식에 젖어 특권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면서 참된 유대인과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이며, 할례는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표였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에 빠져 종교적 형식만 있을 뿐 실천적 삶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날 참된 신앙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20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고귀한 은혜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는 말씀에서 “신앙인으로 불리는 네가” 하고 자신의 이름을 넣고 불러 보십시오. 바울이 열거한 특권 가운데 내가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2. 바울은 율법을 받았지만 온전히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21-22). 율법을 범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어긴다는 말일까요? (23절). 율법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율법의 실천이 없었던 그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24절) 나 자신의 종교적 형식과 실천적 삶을 구분하여 저울의 양쪽 위에 올려 놓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을까요?
3.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28-29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4.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유대인들, 즉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성경의 지식이 쌓여가면서 교회 생활에는 성실하지만 사랑과 섬김의 삶이 약해져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과 신자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 중에서 강조한 말씀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은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신자답게 살아낼 때 구원 받은 백성이다.